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① - 서울 불광사 불광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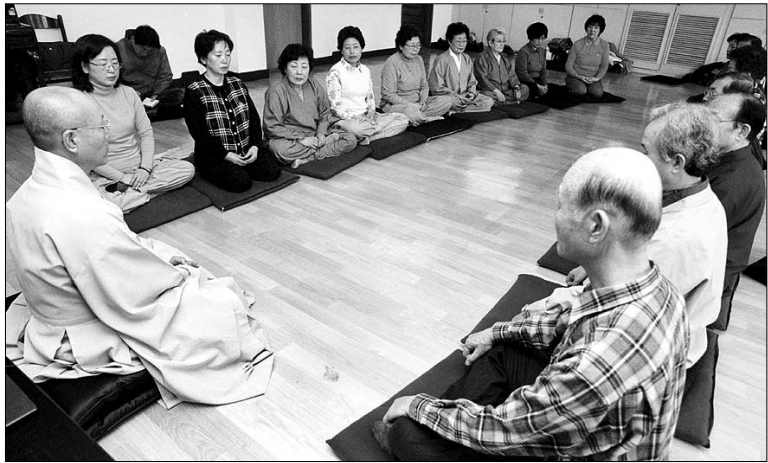
삶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수행이 그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열한 내면의 고투를 거둬 삶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수행열기가 지금 도심수행도량을 달구고 있다.

본지는 이렇게 도심에 불교 수행바람의 전원지를 찾아가보려고 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가. 독자들과 함께 도심수행도량을 찾아 나선다.

육바라밀 실천으로 본래부처 확인

#불광사 대학원 1기 졸업생들 뭉쳐 선원 열어

“호흡은 어떻게 하나?” “살고 죽는 것이 호흡 하나에 달려있어요. 호흡이 맑고 마음을 정정하게 만듭니다. 들숨과 날숨을 잘 들여다보세요.” 3월 8일 오후, 서울 잠실 불광사 불광선원. 구참자 배광식(78·종본)씨와 한 초참자의 문답이다. 초참수행자는 참선수행의 기초인 수식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 “즐거은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돈된 호흡으로 내 생명을 다시 의식하세요. 그러면 활기찬 들숨과 날숨을 경험하게 돼요. 그 때 호흡이 즐거워집니다.”



서울 불광사 불광선원 불자들이 3월 8일 선원에서 회주 지홍스님과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반야바라밀수행법을 수행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이 수행법은 바로 내가, 부처님의 행인 육바라밀과 보현행원을 실천해 본래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선원의 수행은 ‘바라밀수행법’에 맞춰 있다. 광덕(1927~1999) 스님이 ‘반야바라밀을 정견(正見)으로 보현행원을 대행(大行)으로 삼아 마음공부하라’는 가르침에 바라밀수행법의 원리가 담겨있다.

즉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바라밀수행법의 목표이고,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 구체적인 수행행위라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을 정견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마음공부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바라밀수행

특히 육바라밀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지홍 스님은 “모두 다 자기완결성을 갖고 있지만, 각기 연관성이 있다”며 “각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목적이 있어서는 다 같다”고 설명한다. 모두 상통해 있다는 말이다.

#자율적 운영이 원칙...열불·간경 등도 교육

불광선원은 매일 개인별로 자유수행이 이어진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참선은 오후 4시 30분까지 50분씩 두 차례 진행된다. 또 다담시간을 마련해 수행체험담을 나누고, 5가지 동작을 21번 반복하는 티베트 요가체열 시간도 갖는다.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선원을 개방한다.

20년째 바라밀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안효진(88·정정행)씨는 “그간 여러 가지 수행법을 실험해왔지만, 결국에는 바라밀수행으로 정리되면서 지혜의 힘을 알게 됐다”며 “그 힘이 육바라밀과 보현행원을 실천해 부처님의 행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불광사는 바라밀수행법 외에도 초심자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게 다양한 수행법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지홍 스님은 재가불자에게 맞는 기도, 간경, 염불 등을 권하며 발심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특히 불광사 교육원을 통해 모든 경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염불원에서는 반야바라밀염송을 독려해 수행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알도록 하고 있다.

www.bulgwang.org (02)413-6060-2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9> 선종의 저변은 무인가공이다

선언어를 읽다보면 의외로 거칠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이 글의 큰 제목처럼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일이 비일비재하다. 옹구리 쥐어박고 견어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도 모자라 활(弓)과 칼(刀)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른바 ‘활발발’로 표현되는 무인공(無人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이른바 무사의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군인, 사냥꾼 등을 포함하여 무인적인 기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선종으로 출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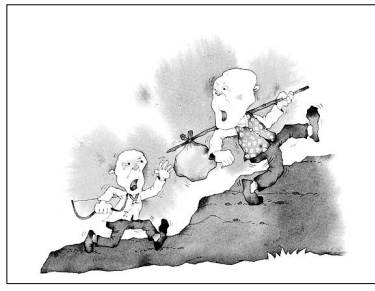
<육조단경>은행본의 도입부에도 이런 류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혜능 선사(638~713)가 조종인으로부터 의발을 전해받고 남쪽으로 도망치는데 뒤쫓아오는 주인공은 혜명 스님이다.

“약 두어달 걸려서 대유령 고개에 도착하였다. 내가 떠나온 이후에 수백명이 쫓아와서 나를 붙잡고 가사와 발우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

어느 날 사슴을 쫓다가 마조 선사를 만나 법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활을 버리고 출가해 마침내 깨침을 얻었다. 근대 한 선종의 방장이 되어서도 출신은 속일 수 없었는지 상당법문을 할 때마다 활(弓) 시위를 당기고는 활(箭)을 하는 것을 한 두번도 아니고 물경 삼십년 동안 계속하였다. 어느 날 삼평이라는 결결한 수좌가 선사 앞에 나타나 ‘쓸테면 쏘라’는 식으로 기습을 풀어제겼다.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효족수를 만날 수 밖에 없다. 석공 선사(가)를 버리고 삼평 수좌 역시 팔팔한 큰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殺人箭)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화살(活人箭)입니까?” 개떡같은 박제된 법문(死句)이제 그만 때려치우고 진짜 살아있는 활구(活句)를 내보이라는 말이다.

이 ‘살인(殺人箭) 활인(活人箭)’은 ‘칼’이라는 말로 대치하면 그대로 ‘활인 검 살인검’이 된다.



군인 사냥꾼 등 다수 선종으로 출가 불퇴전 정진자세 ‘힘’을 ‘뱀’으로 승화

를 뒤쫓아오다가 중간쯤에 모두 되돌아갔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진혜순(陳惠順)이란 동시가 활인검인 까닭에 반야지검(般若箭)이 된 것이다. 그것은 파동 선사(파)의 한다면 취모검(吹毛劍)이 된다. 가늘디 가는 털을 입으로 불어서 칼날에 닿게만 해도 끊어지게 만드는 예리한 칼은 미세한 번뇌까지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반야의 칼이다.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무대뽀인 것은 아니다. 무사중 역시 법을 위한 것일 때만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혜명 스님도 혜능 선사(가)가 먼저 버린 가사와 발우를 참으로 가진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뱀’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법문을 듣고서 완전히 안목이 열린다.

혜능 선사는 그 이후에도 법성사의 인종 화상 화상에 나타낸 때까지 15년을 사냥꾼과 함께 살았다. 선사에서 사냥꾼을 대표하는 인물이 석공혜정 선사이다. 그는 수렵이 본업이었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칼로 두동강을 내어 모든 시비를 일거에 끊어버린 것은 살인검인 동시에 활인검인 까닭에 반야지검(般若箭)이 된 것이다. 그것은 파동 선사(파)의 한다면 취모검(吹毛劍)이 된다. 가늘디 가는 털을 입으로 불어서 칼날에 닿게만 해도 끊어지게 만드는 예리한 칼은 미세한 번뇌까지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반야의 칼이다.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무대뽀인 것은 아니다. 무사중 역시 법을 위한 것일 때만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혜명 스님도 혜능 선사(가)가 먼저 버린 가사와 발우를 참으로 가진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뱀’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법문을 듣고서 완전히 안목이 열린다.

혜능 선사는 그 이후에도 법성사의 인종 화상 화상에 나타낸 때까지 15년을 사냥꾼과 함께 살았다. 선사에서 사냥꾼을 대표하는 인물이 석공혜정 선사이다. 그는 수렵이 본업이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해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선수행-정신치료 관계를 말한다 26일 서울대병원서 첫 학술연찬회

‘선(禪)수행과 정신치료, 소통이 가능한가?’ 한국정신치료학회(회장 이정국)는 3월 26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학술연찬회를 갖고,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한국 선수행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상호대화의 장을 간헐적으로 마련했었지만, 이번처럼 양 분야의 전문가가 대단위로 학술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연찬회에서는 수행자들의 선수

행 체험담을 발표하는 시간이 준비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현우(서울 육조사 선원장), 지운(대구 용연사 주지) 스님, 전현우(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이 발표자로 나서고, 박병탁(전문의)가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연찬회는 또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이동식 명예회장(한국정신치료학회) 등을 좌장으로 한 폐쇄회의가 진행된다. 폐회로는 문홍제(신경정신과 전문의, 흥성화 영남대 명예교수) 등이 나선다. (02)764-8432 김철우 기자

불교의 기준을 정한다 수행 학교 반나라마 부처님이 직접 행한 정통수행법인 짜퍼수행(위빠사나, 참선)과 근본불교를 통하여 마음의 휴식과 삶의 여유를 즐기세요. 18기 수강생 모집안내: 개설과목,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 입학식: 3월 20일 오후 1시 각 지역 반나라마, 모집대상: 부처님이 행한 정통수행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34년 전통의 웅변·연설·설법의 도장 (모) 설법대학 제3기 학인 (집) 34년간 웅변, 연설, 설법, 대중스피치, 화술교육을 통하여 불국정토 구현과 대중화술 보급에 앞장서 온 대한불교웅변인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을 설립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및 개강일: 2005년 3월 12일 ~ 4월 10일, 2005년 4월 12일(화) 오후 2시 ~ 4시